

주요개념 : 돌봄

## 한국인의 건강과 관련된 돌봄\* - 강원도 위촌리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기술지 -

황 혜 연\*\*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돌봄(caring)은 간호의 독특한 패러다임으로, 간호의 본질이며 인간 실존에 필수적인 것이며(Morse, Solberg, Neander, Bottorff, Johnson, 1990), 돌봄에 대한 다양한 표현, 의미, 형태, 양식은 문화적으로 유래되었다(Leininger, 1984).

4332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농경민으로서의 특유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건강에 관한 풍속이 있었으니 그것의 최대관심은 건강·장수에 있었고, 음양원리나 추술적인 힘을 이용한 것이 많았다(임재해, 1990). 그러나 전통은 낡은 것이고 그것은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근대의 사고 속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소멸되어 갔던 우리의 전통문화는 최근까지 서구문화에 의해 가려져 왔을 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창조할 기회는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김귀분, 1991).

간호의 중심개념은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인 바(Fawcett, 1984), 인간을 이해하고 간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 사상, 자연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우리 민족만이 가진 기질, 지리, 환경과 사회 형태로 타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와 사회의 산물로서 사상이 전개되므로 전통사상 속

에 담겨있는 간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신경림,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민족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사상 속에서 건강과 관련된 돌봄을 문화기술지를 이용하여 기술하여 설명함으로써 한국적 간호이론을 개발 하고자 하며, 다양한 돌봄의 의미를 확인하여 문화요구에 부합되는 질적인 간호중재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 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 속에 융해되어 있는 건강과 관련된 돌봄의 의미를 파악하여 기술, 설명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사상 및 정서에 부합되는 돌봄의 제공은 물론 간호이론을 개발 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강원도 지역민의 돌봄을 확인하고, 강원도 지역민의 돌봄을 전통문화사상 속에서 기술·설명하며, 강원도 지역민의 돌봄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 II. 문 헌 고 찰

#### 1. 한국인의 건강관과 돌봄

한기연(1982)은 전통교육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특성

\* 이 논문은 1999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임

\*\* 영동전문대학 간호과 (HyeYeon@Yeongdong.ac.kr)

을 孝, 誠, 公, 寬, 勤, 信의 여섯가지로 보았는데 이 여섯 가지는 구체적인 한국인의 像이며, 이상상 인 바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전통문화사상을 사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를 중심으로 이들을 연관시켜 한국인의 건강관을 고찰해 보면, 무교 측면에서 연구한 질병의 개념(최문식, 19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빙의현상(spirit intrusion)으로서 ‘신이 짊혀서’, ‘신이 몸에 들어와서’, ‘신이 쇠워서’ 등으로 표현된다(김광일, 원호택, 1972). 불교에서의 질병은 地水火風의 부조화로 생기며(허경, 1992), 또한 내부의 인연 즉 음식의 부조화, 자고 일어남의 부조화 또는 4요인의 부조화와 외부의 인연인 외상 즉 전쟁부상, 칼, 때로 인한 상처, 낙상, 한랭, 열기, 굶주림 등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마음의 이기심, 탐심, 미움 등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금 오, 1991). 퇴계는 『養生絶句次古人韻示景森』에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을 해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갖는 것이 養身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며(이상운, 1973), 또한 『方行錄』에서 “학자는 그 기력을 헤아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며 곳에 따라 관상하고 체험하여 마음이 放逸 하지 않게 하면 어찌 병이 나겠느냐?” 고 하였다(박용태, 1986).

노장의 건강사상을 나타내는 진술을 보면, 『노자 26장』은 “귀중한 몸과 고요한 마음을 다스려야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하였고, 『노자 43장』은 “무위의 이로운과 말없는 가르침을 베푸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다”고 하였다(권봉수, 1997).

돌봄(caring)은 인간사랑에 대한 가장 오래된 표현형태로서 일반대중 속에서 형성·발전되었으며 간호의 본질이요(Morse 외 4인, 1990), 간호전문직의 근본적인 가치 중의 하나이다(Malin, Teasdale, 1991). Leininger(1977)는 돌봄은 가장 중심이 되는 간호의 결정, 실제업무, 간호의 목적을 위한 원동력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간호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돌봄과 관계된 사고보다 더 필수적이고 중심이 되며 교육, 연구, 실무에서 더 장래가 기대되는 구성개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돌봄의 개념은 1980년대 끝 무렵부터 더 폭넓은 방법으로 사용되어졌으며(Meleis, Hall, Stevens, 1994),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어지는 간호학의 도덕적인 형태가 되었다(Watson, 1996). Ward(1998)는 최근에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의 실무 초점을 돌봄 철학으로 확신하고, 돌봄은 염두에 두게 되는 것, 신뢰관계를 가지는 것,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 지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 사적 수준 이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치유할 잠재력을 갖는 것 등과 같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다면적인 기능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돌봄은 또한 자연과 우주사이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인간총체, 정신, 육체, 영혼간의 상호작용성을 인지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의해 발전하였다(Gaut, Boykin, 1994).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증진, 질병예방 및 재활 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간호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병리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원리 이기보다는 사람의 삶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은 대상자 고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계층간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지역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한국전통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지역, 65세를 전후로 기억력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보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이 많은 지역, 연구자와 근접한 지역으로 친밀함을 갖고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된 곳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로서 연구자의 거주지에서 약 5 km 거리에 있는 마을을 선정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되는 시점인 남자 6명, 여자 18명으로 총 24명이다. 연령분포는 63~90세이며, 평균연령은 72.6세이다.

#### 3. 연구참여자 보호

질적 연구시의 면담자료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면담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 할 것이며 신분을 보호해 줄 것이고, 원하지 않는 사생활의

노출은 피하기로 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 4. 자료수집 과정

자료수집은 1998년 1월부터 시작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1999년 4월까지 1년 3개월간 지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녹음, 관찰, 기록된 내용은 대화체 그대로 옮긴 뒤 분석하였다. 1인당 1회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3시간으로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횟수는 3~4회 정도 이루어졌다.

#### 5. 자료정리와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radley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정리,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참여

<표1> 돌봄의 의미

영역	범주	속성	원 자료	
배려	섬기는 삶	위하는 마음	먼저드리다 대접하다 권하다 원하는 음식을 드리다 거르지 않고 드리다 좋은 음식을 드리다 알맞게 드리다 대소변을 받다 대변을 꺼내다 몸을 씻기다	머리를 빗기다 잠 못 자고 보살피다 속을 썩이지 않다 공경하다 위하다 예의를 지키다 먼저 생각을 하다 서로 생각을 하다 안부를 묻다
		베푸는 마음	주다 돈을 주다 더 주다 나누어주다	바주다 곳은일을 하다 잘해 주다 베풀다
		포용하는 마음	너그럽게 하다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달래다 다투지 않다	입장을 생각하다 신경을 쓰다 관심을 쓰다 마음을 쓰다
		존중하는 마음	경제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다 비교하지 않다	홍보지 않다
조화	조절하는 삶	절제하는 마음	가리지 않고 먹다 알맞게 먹다 많이 먹지 않다 혼식을 하다 제 시간에 먹다 적당히 먹다 즐겁게 먹다	싱싱한 것을 먹다 야채를 먹다 육류를 먹지 않다 간식을 하지 않다 술을 마시지 않다 약을 먹지 않다
		부지런한 마음	힘껏 하다 튀든지 다하다 앓을 시간이 없이 하다 은중일 일을 하다 일찍 일어나다 잠을 자지 못하다	부지런히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 자꾸 움직이다 계속해서 일하다 악착스럽게 하다

자의 언어적 표현 그대로 글로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필사된 원자료에서 건강과 관련된 돌봄에 관한 문장을 중심으로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의 총 수는 477개였다. 세번째 단계는 작성한 카드들 중 비슷한 의미를 가진 카드들끼리 분류하여 속성을 발견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분류된 카드의 특성에 따라 범주화 하였고, 다섯 번째 단계는 범주화와 관련된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 IV. 연구결과

한국적 문화, 특히 강원도 문화권 내에서 인간의 건강유지·증진과 관련된 돌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여 설명하고자 연구한 결과<표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계속

영역	범주	속성	원자료	
조화	열심히 사는 삶	성실한 마음	땅을 사다 형편대로 살다 재산을 차근차근 불리다	자수성가하다 아끼다 필요시에만 쓰다
		책임을 다하는 마음	의미있는 일을 하다 자료를 정리하다 맡은일을 하다	고향을 지키다 할 일을 다하다 마을을 위해 일하다
	행복한 삶	긍정적인 마음	즐겁게 살다 마음이 편하다 자부심을 갖다	웃고 살다 좋게 생각하다 칭찬을 하다
		일상을 만족하는 마음	자녀의 결혼 손자의 출생 손녀의 개롱 자녀의 취직	손·자녀의 대학진학 손자의 존재 아이를 낳다
		감사하는 마음	집에 방문오다 건강을 되찾다	건강을 유지하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마음	조상의 덕을 보다 조상 생각을 하다 산소를 가꾸다	조상에게 성의를 다하다 제사를 잘 지내다
		기원하는 마음	소망을 지니다 기대를 하다	빌다
순응	수용하는 삶	순종하는 마음	받아들이다 말대답을 하지 않다 참다 만족하고 살다	있는 그대로 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해하다
		채념하는 마음	마음대로 못하다 마음대로 안되다 하늘에 달렸다 그냥 살다	명대로 살다 한이 삭다 생각을 바꾸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화합하는 마음	이웃끼리 모이다 사정을 알다	화내지 않다 싸우지 않다
		서로 돕는 마음	가족끼리 서로 거들다 이웃끼리 서로 거들다	이웃간에 서로 돕다 서로 나누어 먹다
초월	지배하는 삶	사심 없는 마음	힘에 맞게 살다 양심껏 살다 속에 담아 두지 않다 속이지 않다 본심으로 살다	피해를 주지 않다 어긋나지 않다 욕심없이 살다 분수를 알다
		육체를 다스리는 마음	충분히 자다 걷다 노동을 하다	나뭇아 다니다 자주 돌아다니다 조강을 하다
		정신을 다스리는 마음	정신이 중요하다	병행하다
	보유하는 삶	자연을 다스리는 마음	물이 좋다 공기가 맑다	흙냄새를 맡다
		미풍양속을 지키는 마음	옛것을 그대로 하다	
		고유의 풍습을 이어가는 마음	자연을 이용하다 침·땀·사관을 이용하다	무속신앙적으로 빌다

## V. 논 의

### 1. 돌봄의 의미

건강과 관련된 돌봄의 양상은 ‘섬기는 삶’, ‘조절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 ‘행복한 삶’, ‘수용하는 삶’, ‘더불어 함께 하는 삶’, ‘지배하는 삶’, ‘보유하는 삶’ 등 여덟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개별적 범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인 ‘섬기는 삶’은 ‘위하는 마음’, ‘혜주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위하는 마음’에서는 어른을 모시는 측면에서 신체, 심리, 정서 및 사회적인 면이孝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생활은 자신보다 다른 가족들을 먼저 생각한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여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는 반드시 죽이나 국수(주로 나물죽이나 건추죽, 청밀국수)를 먹었다. 그 죽도 넉넉하지 못하여 다른 식구들 뿔을 먼저 떠 놓고 보면 자신의 뿔은 없어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어른들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해 드리려고 하며,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먹었던 잡곡밥 대신 흰 쌀로만 밥을 해 드리며 성심껏 모신다. 바람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목욕시키는 일, 머리 빗기는 일, 식사 대접하는 일, 돌려 놓히는 일, 대변 꺼내주는 일, 소변 누기는 일을 할 때에도 그저 성심껏 한다.

두 번째 범주인 ‘조절하는 삶’은 한국인의 전통윤리와 가치관에 기인한 ‘절제하는 마음’의 속성이 나타났다.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먹으며, 소식하고, 식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한다. 과일, 야채는 밥에서 금방 따온 것을 먹으며, 간식과 육류, 술을 절제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윤리, 가치관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철학 또는 규범으로 되어 곧 聖人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계승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범주인 ‘열심히 사는 삶’에서는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마음’, ‘책임을 다하는 마음’의 속성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였으며, 또한 이 고장을 지키어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어야겠다는 책임감에서 삶의 목표를 세워 하루하루를 인고와 노력으로 견디어 살아왔다.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잠자는 것도 마다하고 하며, 앓을 시간조차 없이 부지런히 온종일 일을 한다. 근면하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에 열심히 일

한 결과 조그마한 돈을 살 수 있었고, 차츰차츰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다. 모든 면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돈은 꼭 필요할 때만 쓴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보다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네 번째 범주인 ‘행복한 삶’은 현실적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기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마음’, ‘일상을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마음’, ‘기원하는 마음’의 속성이 나타났다. 생활은 궁핍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칭찬을 해주며 즐겁게 산다. 일상생활 중 손자·손녀의 사랑스러움이나, 손·자녀의 출생이나 결혼, 진학, 취직 등은 만족감을 주며, 주말이면 찾아오는 자식들, 잘 유지되고 있는 건강은 늘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러한 행복은 모두 조상의 덕이므로 조상의 생각을 하고, 산소를 잘 가꾸고, 성의 있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은 주로 자식으로 인한 것이었다.

다섯 번째 범주인 ‘수용하는 삶’은 ‘순종하는 마음’, ‘체념하는 마음’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되도록 참고 지내며, 절대로 말대꾸를 안한다. 또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살면서 서로 이해한다. 자식과 수명, 농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아픔이라도 겪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

여섯 번째 범주인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은 가족간이나 이웃끼리 화목하게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는 ‘화합하는 마음’과 ‘서로 돕는 마음’의 속성이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자식을 야단치기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타일렀고, 온 식구가 합심하여 가정의 일을 해결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이므로 이웃끼리는 서로 거들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였기에 서로의 사정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아슬러 융화가 잘 된다.

일곱 번째 범주는 ‘지배하는 삶’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 없이, 정신과 육체와 자연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심 없는 마음’, ‘육체를 다스리는 마음’, ‘정신을 다스리는 마음’, ‘자연에 다스리는 마음’의 속성을 나타내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양심껏, 본심으로 살아왔고, 분수를 알고 욕심 내지 않았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긋남 없이 힘에 맞는 삶을 살았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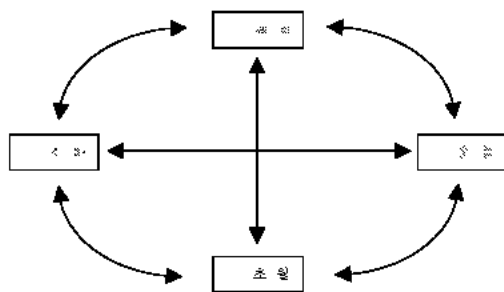
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걷거나 돌아다니 신체를 다스렸고, 정신과 육체는 병행한다고 생각하며, 깨끗한 물과 공기, 흙 등의 자연을 벗삼아 우리 고유의 풍습을 이어간다.

여덟 번째 범주는 '보유하는 삶'으로 '미풍양속을 지키는 마음'과 '고유의 풍습을 이어가는 마음'의 속성이 나타났다. 미풍양속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 이웃간에 이루어지는 품앗이나 두레 따위의 공동체 생활, 마을을 위하여 일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자신들이 그대로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민의 건강과 관련된 돌봄을 확인하여 우리 민족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문화사상 속에서 탐색해 본 결과 다양한 외래문화의 유입과 문명의 이기를 통한 역사적 변천과정이 있었음에도, 강원도 지역민의 사고원형은 우리의 고유한 사상적 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돌봄의 개념적 틀

이상과 같이 돌봄의 개념을 확인한 바 건강과 관련된 돌봄의 개념적 틀은 배려성, 조화성, 순응성, 초월성으로 확인되었다. 즉, 마음을 인간과 우주의 근본으로 삼고 모든 일에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우주만물과의 조화 및 마음의 조화를 지니고 자연의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일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상호 관련된 순환체계를 형성하면서 발전, 계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도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돌봄의 개념적 틀

VI.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강

원도 한 마을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돌봄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한국 전통문화사상 속에 용해되어 있는 건강에 따른 돌봄을 기술·설명하여 우리 문화 정서에 맞는 돌봄은 물론 간호이론을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지였다. 연구참여자는 남자 6명, 여자 18명으로 총 24명이었고, 평균연령은 72.6세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1월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1999년 4월까지로 1인당 평균 면담횟수는 3-4회이었으며, 1회 면담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다. 수집한 자료는 Spradley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지역민의 건강과 관련된 돌봄의 첫 번째 범주는 '섬기는 삶'으로 속성은 '위하는 마음', '배우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2. 두 번째 범주는 '조절하는 삶'으로, 속성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3. 세 번째 범주는 '열심히 사는 삶'으로, 속성은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마음',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었다.
4. 네 번째 범주는 '행복한 삶'으로, 속성은 '긍정적인 마음', '일상을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마음',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5. 다섯 번째 범주는 '수용하는 삶'으로, 속성은 '순종하는 마음', '체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6. 여섯 번째 범주는 '더불어 함께 하는 삶'으로, 속성은 '화합하는 마음'과 '서로 돕는 마음'이 나타났다.
7. 일곱 번째 범주는 '지배하는 삶'으로, 속성은 '사심 없는 마음', '육체를 다스리는 마음', '정신을 다스리는 마음', '자연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8. 여덟 번째 범주는 '보유하는 삶'으로, 속성은 '미풍양속을 지키는 마음', '고유의 풍습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건강과 관련된 돌봄의 개념적 틀은 배려성, 조화성, 순응성, 초월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원리는 상호관련된 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다양한 지역의 기층문화의 건강과 관련된 돌봄의 자료를 수집, 확인, 비교하여 돌봄이 체계화되고 이론화될 수 있도록 반복 연구가 요청된다.
2. 전통적 문화사상, 신념, 가치, 행위에 대한 교육이 간호교육과정에 도입되어 보다 폭넓은 인간이해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권봉숙 (1997). 노장의 건강담론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오 (1991). 건강으로 가는 추억탐구. 서울: 삼진기획.
- 김광일, 원호택 (1972). 한국민간정신의학(1). 신경정신의학, 11(2), 85-98.
- 김귀분 (1991).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대한 민속과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태 (1986). 이황의 신체관 및 건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향룡(1993). 동양인의 철학적사고와 그 삶의 세계. 서울: 명문당.
- 신경림 (1998). 간호학적 측면의 대체요법: 한국적 간호중재, 과학의 날 기념 춘계 학술대회보고서. 대한간호학회, 32 - 45.
- 이상은 (1973). 퇴계의 생애와 학문. 서울: 서문당.
- 임재해 (1990).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23, 285-308.
- 최문식 (1993). 한국인의 귀신관: 민속적 삶의 의미. 서울: 한울.
- 한기연 (1982). 전통교육에서 본 한국인. 정신문화,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5-56.
- 허 정 (1992). 에세이 한국의료사. 서울: 한울.
- Fawcett, J. (1984).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ceptual models of nursing theory development. American Nursing Science, 3 (1), 1-7.
- Gaut, D., Boykin, A. (1994). Caring as healing renewal through hope. New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Leininger, M. M. (1977). The phenomenon of caring-caring the essence and central focus of nursing. American Nurse Foundation, 2, March, 14.
- \_\_\_\_\_ (1984). Transcultural nursing: An over view. Nursing Outlook, 32(2), 72-73.
- Malin, N., Teasdale, K.(1991). Caring versus empowerment: Considerations for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 (6), 657-662.
- Meleis, A., Hall, J., & Stevens, P. (1994). Scholarly caring in doctoral nursing education: Promoting diversity and collaborative mentorship. Image, 26(3), 177-180.
- Morse, J. M., Solberg, S. M., Neander, W. L., Bottorff, J. L., & Johnson, J. L. (1990). Concepts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3(1), 1-14
- Ward, S. L. (1998). Caring and healing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3(4), 210-215.
- Watson, J. (1996). Watson's theory of transpersonal caring. In P. H. Walker & B. Neuman(Eds). Blueprint for use of nursing models: Education, research, practice and administration.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Abstract-

Key concept : Caring

### Caring related to Health in Korea - Ethnography centered Wichon-ri, Kangwon-do -

Hwang, Hye Yeon\*

The propose of the study is to try to support the practice of caring suitable for our cultural emotion by cognating the meaning of caring related to health which is melted in korean culture. Concrete purposes were as followings; to first, confirm the caring of civilian in Kangwon-do, to secondly search the caring in the traditional culture idea, and to thirdly present the conceptual frame about the caring.

The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is the ethnography to use the depth interview and the participative observation. The geographical area of this research was in Wichon-ri, Songsan- myon,

\*Department of Nursing, Yeongdong College.

Kangnung-shi, Kangwon-do. Study participants were, 6men and 18women, totally 24 persons. Their average age was 72.6 years ol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January, 1998 to April, 1999, which original data became saturation. Data collection was done after accept allowance of the participants, their stories were recorded in cassette, by the way of the Spradley analysis was applied and adjusted.

The results which was analyzed as domain, category and property were as following; First, the category was the life serving other persons, which is the for mind, the benefiting one, the comprehensive one, the respective one, on soon.

Second, the category was the controlling life, and its property was the moderate mind, that is, vegetables were tried to be fed moderately, pleasantly and comfortable.

Thirdly, the category was the eagerness life, and the properties were diligent mind, and mind which accomplished the complete responsibility.

Fourth, the category was a happy life, and the properties were positive mind, satisfying

one, thankful one, one of their ancestors benefit, and supplicatory one.

Fifth, the category was the accepting life, and the properties were the submissive mind, resign one.

Sixth, the category was the joint life all together and the properties were the harmonized mind, and the mutual helping one.

Seventh, the category was the ruling life, and the properties were the pure mind, the ones which controls the body, the mind, the nature; which could surely confirmed the source of the life that lived with the nature, the native idea of our people.

Eighth, the category was the retaining life, and the properties were the inherits the native custom, and the one that keep public moral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aring in ethnography, the general caring was performed the conceptual frame about the caring which is related to health was found in the principle of consideration, harmony, compliance, and transcendence.